

요 약

- ▶ 국내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비중은 과거 1990년대 20%를 상회하기도 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4%대에 이르고 있음.
- ▶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도 산업의 수명주기(industry life cycle)상 성숙기 단계에 이미 진입하였으며, 조만간 구미 선진국과 같이 국내총생산(GDP)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%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함.
- ▶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과거 38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세계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투자 변화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였음.
- ▶ OECD 국가들의 과거 38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소득수준과 전체 건설투자 비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, 1인당 GDP가 약 1만 2천 달러(2000년 불변금액 및 PPP기준) 수준까지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다가 이후부터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.
- ▶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정립한 모델식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3.0~13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2020년에는 11.0~11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▶ 한편, 건설투자 금액 자체는 2000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2015년에 134.6조~139.8조원, 2020년에 140.1조~146.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, 이에 따라 2010~15년 동안 국내 건설투자는 연평균 1.9~2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2015~20년 동안은 연평균 0.8~1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- ▶ 결국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성숙기로 본격 진입하고, 2020년 이후에는 구미 선진국과 비슷하게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10%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▶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, 기본적인 SOC 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 대신 신기술에 의해 사회적 니즈(needs)를 질적으로 보다 충족시키는 건설 프로젝트, 기존 도시 및 건축, 시설물의 재생과 유지관리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